

# “미륵사지 사리 친견법회 익산서 봉행”

## 익산시 긴급대책회의서 결의... 조계종 “문화재청과 협의해 결정”

“익산 미륵사지 진신사리 친견법회는 반드시 익산에서 봉행되어야 한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구에서 발견된 사리의 친견법회 개최 장소를 두고 조계종 총무원과 문화재청 등이 조율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익산시는 5월 5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이한수 시장 주재로 ‘익산 미륵사지 문화유산 지킴이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익산시산업연합회장 우성섭, 승탑사 지광스님, 익산불교신도연합회 박근구 회장을 비롯한 익산 불교계 관계자와 조배숙·이춘석 국회의원, 배승철 도의원, 장오준 시의회의장, 최종오 기획행정위원장, 유기상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완규 마한백제문화연구소장 등 관계 기관·단체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열린 회의는 조계종 총무원



익산시는 5월 5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익산 미륵사지 문화유산 지킴이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등이 미륵사지가 있는 익산 지역이 아닌 서울 조계사 등에서 사리친견법회를 개최할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이었다.

익산시는 1월 14일 사리장엄구 발견 후 1주일도 채 되지 않았던 20일, 익산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를 관광상품화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밝

히는 등 익산 미륵사지 사리장엄구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왔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조계종이 미륵사지석탑 사리 친견법회를 서울 조계사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법회로 개최하려 한다는 정

보가 입수되었다. 이를 통해 사리장엄구를 타지역에서 전시·보관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발견된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구는 불교의 성보일뿐만 아니라 국가문화재임으로 사리 친견법회는 사리가 발견된 익산 미륵사지 현장에서 먼저 봉행되어야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지역 정서를 조계종 총무원과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등 사리 친견법회의 익산 개최를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기로 다짐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문화부 관계자는 “익산미륵사지 석탑 사리친견법회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빠른 시일 내 조계종 문화부가 지역 교구본사인 김제 금산사와 조율해 의견을 모은 후 문화재청 등

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는 윤 5월을 맞아 익산 미륵사지에서 생전예수재를 겸한 사리친견법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부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 범어사 통도사 삼광사 등 봉축법요식 봉행

불기 2553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 2일 범어사와 부산지역 주요 사찰에서는 봉축법요식이 일제히 봉행됐다.

선찰대본산 범어사(주지 정여)는 2일 대웅전에서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범어사 다도회의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헌화·관욕, 발원문, 봉축사, 봉행사, 축사, 범어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이어 오후 4시부터 문화예술큐 및 점등식이 이어졌다.

정여 스님은 “고요하고 맑은 마음은 부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 누구나 똑같은 청정한 불성 광명을 갖고 있지만 어리석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 뿐”이라며 “나 라는 한정된 마음을 열어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자”고 설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정우)도 같은 날 설법전에서 봉축법요식을 갖고, 적멸보궁 현대대, 장영 등 경연대회, 봉축연등 점등식 등을 진행했다. 4월 말부터 일주일 간 통도사 경내 먹거리 마당, 전

통놀이 마당, 공연 마당, 일주문부터 산문까지 제등행렬 등을 마련해 지역 시민과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을 펼쳤다.

이에 앞서 천태총삼광사(주지 화산)는 1일 대웅보전 앞 광장에서 봉축전야 대법회를 갖고, 이어 2일 오전 11시 봉축 법요식을 개최했다. 상월원 각대조사 범어, 국운옹장기원, 현향·현화 및 관불, 봉행사, 봉축사, 봉축범어 등의 순으로 여법하게 진행했다.

대한불교법원도 2일 부산연제구 본원에서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번 법요식에는 지역 정·재계 주요 인사들을 비롯해 가톨릭 예무살림원장 왕영수 신부, 부산종교인평화회의 고문 정영문 목사, 이슬람교 이맘 부산의국대학교 교수 하산, 천리교 허진호 목사, 일본 신사 오가와 신주 등 세계 종교지도자 및 신도 1만여 명이 참석했다.

박지원 기자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과 허남식 부산시장이 관육을 하고 있다(위). 삼광사에서 등을 달고 있는 불자들(아래).

# “윤산 훼손·목탁소리도 소음될 것”

## 덕운사, 노인복지시설 건축허가 신청에 ‘항의’

부산 덕운사(주지 경산) 입야에 건립 예정인 노인복지시설의 건축허가 신청의 반대를 주장하며 덕운사 주지스님과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부, 신도들이 5월 6일



덕운사 주지스님과 신도들은 5월 6일 금정구청을 항의방문했다.

2508㎡의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할 계획이

다. 이에 고북복 금정구청장은 “덕운사 측에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일정을 조율하고, 심의위원회 개최 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508㎡의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할 계획이

다. 이에 고북복 금정구청장은 “덕운사 측에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일정을 조율하고, 심의위원회 개최 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 아미타여래불 점안 “서원 이루길...”

## 광주광역시 본촌동 소재 대원정사(주지 일화)는 5월 2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석조 아미타여래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봉안된 아미타여래불은 2007년 6월 원인 모를 화재로 대웅전이 소실됐을때 건물 안에 안치돼 같이 소실된 청동 아미타여래불을 석조로 복원한 것으로 현재 복원불사가 진행 중인 대웅전 뒤쪽에 봉안됐다.

전북 무형문화재 제36호 김옥수 불모가 조각한 불상은 높이 8자(8m 40)의 황동석 재질로 조각됐다.

일화 스님은 점안에 이은 봉행사에서 “아미타여래불은 한가지 소원은 반드시 이룬다는 서원을 갖는 부처님이다. 광주의 많은 불자들이 이곳에서 많은 기도와 정진을 통해 저마다의 큰 서원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서구노인복지관 어르신 모시고 잔치

대전서구노인복지관(관장 장곡)은 제37회 어버이날을 맞아 5월 7일 경로행사를 개최했다. 경로행사에는 가가신 서구청장, 지자체 관계자 등이 대거 참가했다. 행사에서 탄방초교 결스카웃 70여 명은 이날 참석한 400여 어르신

들께 케네이션을 맡아주며 어버이 날노래를 불러 큰 감동을 선사했다. 장곡 스님은 “불교의 근본은 효”라고 강조하며, “어르신들의 만수무강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자”고 당부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 “정진으로 지혜롭고 행복하게”

## 영주시청법우회(회장 주정래)가 4월 30일 영주시민회관 대강당에서 前 포교원장 정락 스님 초청 영주경찰서장 등 6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 정락 스님 초청 법회



영주시청법우회는 4월 30일 前 조계종 포교원장 정락 스님 초청 시민대법회를 봉행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영주시청법우회가 주관하고 영주시 4·8봉축위원회 후원으로 열린 법회에는 정락 스님, 도기 스님(영주 관음사 주지), 도륜 스님(영주시에안인종합복지관장), 김주영 영주시장, 장대봉 영주경찰서장 등 6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정락 스님은 법문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주제로 ‘부처님의 가

르침을 따르는 보살로서 자비심으로 항상 배푸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무상 정진의 깨침을 위해 위없는 수행정진을 통해 지혜로운 삶의 자세와 건강, 능력, 자유, 사랑, 기쁨이 있는 행복의 삶을 살라”고 당부했다.

2003년 3월 창립한 법우회는 현재 108명의 회원으로 매월 정기법회, 초파일 주간 큰스님 초청 시민대법회를 개최하고 연 2회 사찰 순회법회와 성지순례, 불교 문화재 구기 등 활발한 실행활동을 하고 있다.

이상언 기자

# ‘심우원’ 개관

## 풍기 거사불자 회관

생활불교·실천불교에 앞장서온 풍기지역 법우회·구도회·달마회 재가불자들이 재가불교회관을 건립하고 거사불교의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4월 19일 경북 풍기지역 거사불자들은 15년 동안 신행 공간 마련에 원력을 모아 창립 35주년 기념법회와 함께 재가불교회관 ‘심우원(壽牛園)’ 개관식을 봉행했다.

120여 명이 활동 중인 거사들의 신행모임인 법우회·구도회·달마회는 법회장소가 없어 20년 간 유랑법회가 불가피했다. 이에 창립 20주년 기념법회 때 신행공간 마련에 원력을 세우고 약 1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여법한 자신들만의 법회공간을 신축했다.

이상언 기자

### 조상의 슬기를 모은 치료 비법 성훈따주기 강좌 안내

**성훈따주기란?**  
성훈따주기는 누구나 쉽게 바늘 하나로 몸에 병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입니다. 성훈스님께서서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통 따주기를 체계화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동안 따주기를 배운 회원들은 매달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이 가능하며 뜻있는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 강좌

**1 1박 2일 강좌(숙식제공)**

- 일정 및 수강료
  - ① 일 정 : 2009. 5. 23(토) 오후 1시부터 ~ 5. 24(일) 오후 6시까지
  - ② 수강료 : 10만원 (교재, 침 별도)
- 모집인원 : 25명 (선착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 천 사 (강의실)
- 준비물 : 편안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5047 H·P 010-2031-1233

**2 매주 화요일 강좌(11회 과정)**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수강료 : 10만원
- 장 소 : 수효사 효림원 8층 (법당)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3060

※ 따주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 교재 : 6,000원 / 침 : 10,000원

## 낙태.유산

### 무보시 동참 위령제

**10,800원의 행복 (참화와 가벼움)**

- 이행사는 10년만에 하는 단 한 번의 특별행사입니다. 꼭 동참 하세요.

당 사찰은 10년간 낙태, 유산된 태아의 슬픈 넋을 위로 하기위해 매년 4회 이상 49재 형식으로 위령제를 봉행 해오던 곳입니다. 2009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생명경시에 대한 경중과 참회의 계기와 낙태유산 경험자의 마음의 무거운 빛을 열어 드리고자 특별행사를 마련케 되었습니다. 1번의 참회에 100원의 정성으로 108번 참회를 통하여 10,800원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민약에 그것도 어려우신 분은 무보시도 가능합니다) 이 행사는 그간 금전적인 시간적인 이유로 못한 분을 위해 전 목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자비의 정신, 불살생의 정신, 실천의 정신을 기리며...

벽운사 주지 지산스님

**초중교적 위령제 봉행**

▶대 상 : 낙태·유산 경험자 남녀 종교불문 (타종교도 존중합니다)

▶형 식 : 49재 천도식(우리말 대중형식으로 스님들이 정성껏 해드립니다.)

▶준비물 : 1번 참회에 100원 108참회=10800원분 / 분유, 배냇저고리, 장난감 등 (위령제 후 전국 미혼모 시설 등에 전량 기부)

▶일 정 : **입재\_ 2009년 5월 6일 오전 10시 30분, 회향\_ 2009년 6월 24일**

▶신 청 : 전화 및 내방, 전국 어디서나 신청가능

**대한불교조계종 벽운사** ☎ 02)979-0108, 02)971-1544  
금강산건봉사포교원 [www.bwjisan.com](http://www.bwjisan.com)

한 · 국 · 전 · 통 · 따 · 주 · 기 · 공 · 덕 · 회